사 설

근본대책 정말없는가

수확기에 접어든 당귀값이 큰 폭으로 내려 농민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근당 6천원대에 거래되던 당귀가 올 들어 4천원 선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천5백원대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올 들어 풍년이 든 것도 과잉재배된 것도 아닌데, 말도 안되며 시세가 급하락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제약사들의 수입엑스제 사용이다. 국내 한약재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수입엑스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국산한약재는 그만큼 재고로 쌓이게 된 때문이다. 둘째,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규격화 고시의 영향이다. 이맘때면 건재약방의 창고는 산지에서 사들인 약재들로 그득그득 쌓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원료의약품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이 유통되는 규격화 시행을 앞두고 건재상들은 한약재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로를 잃어버린 셈이다. 그렇다면 규격화를 담당할 제조업소에서 전량 수매해가는 것이 마땅한 상식이지만, 복지부 산하단체인 제조업소가 '농산물 수매'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떠넘기면 그만이다.

농민이 재배, 수확하기 까지는 농산물로, 가공 후에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약초농사, 그래서 속 터지고 답답한 건 농민들이다.

보다 근본적인 수매대책은 없는가. 누구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몇억씩 불어나는 비자금을 조성할 능력도 없는 농민들이, 흘린 땀 만큼, 기울인 수고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대책은 정말 없는가.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작년 이맘때 본 협회는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제1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했었다.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최된 그날 전시회에는 1백50여종의 국내 재배약재는 물론 약재를 이용해 특별히 고안한 건강베개 방향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첫 만남이 무엇보다 큰 의미로 남는 행사였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는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의 등장이다. 지금껏 마대에 담아 근수를 달아 판매해 왔던 공판장이, 국산한약재만을 전시 판매하는 깔끔한 편의점식 매장으로 변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경동약령시장내에도 국산한약재를 표방하는 매장이 하나 둘 들어서게 됐다. 전시회는 경동시장내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온 셈이다.

올해도,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가 오는 21일 부터 25일 까지 5일간 용산역 광장에서 개최된다.

수입개방의 물결속에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품질경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수 밖에 없다. 고품질의 청정한약재 생산에 힘씀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오늘의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혜요, 자세다. 본 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모두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 전시회도 각계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리라 기대한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30PPM 총 중금속 규제잘못

수입한약재 유해물질 다량함유

중국산 수입한약재에 중금속, 잔류농약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삼재 의원이 한국수도연구소 위생센터에 분석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중금속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해성과 축적성으로 걸출되어서는 안되는 수은이 구기자에서 0.6PPM, 방풍에서 0.13PPM이 검출되었고, 식품공전에서의 허용치가 0.3~2.0PPM인 남은 건강에서 2.48PPM, 고분에서 3.7PPM 검출됐다.

신장이나 간장에 축적되는 카드뮴은 지골피에서 식품허용기준치(0.1PPM)의 5배인 0.52PPM, 구기자 0.25PPM, 건강 0.20PPM, 창출 0.16PPM, 방풍 0.13PPM, 차전자 0.11PPM이 검출돼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한약재가 유해 중금속에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 94년, 보건복지부의 생약재 품질표준화를 위한 기술연구 보고서에서도 우황에 납이 10.84PPM, 수은이 0.21PPM, 카드뮴이 0.27PPM 검출돼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잔류농약

인삼에서 잔류성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국내에선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토양살균제로 쓰이는 PCNB계 농약이 인삼에서 0.66PPM 검출되어 PCNB계 농약 허용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강의원은 지적했다.

FAO/WHO는 PCNB계인 PCNB, PCA/PCTA를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두류에서 0.01PPM이하로 정하고 있고, 한국 식품공전은 곡류에서 0.1, 과채류에서 0.2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1979년 이후 국내에 사용금지된 유기염소계 살충제 BHC류가 인삼에서 허용기준치 0.2PPM의 7배인 1.52PPM, 황기에서 0.54PPM 검출됐고,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복령, 지골피 등에서 BHC가 검출돼 중국산 한약재가 BHC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잘못 됐다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에 유해 중금속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이 총중금속 규제는 잘못이라고 지적됐다.

◇유해 중금속에 대한 별도규정없이 총중금속 규제는 잘못이라고 지적됐다.

한약재의 품질검사 기관의 문제점

강삼재 의원은 『수입한약재의 유해물질 분석 등 품질검사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의약품시험연구소가 전담하는 것은 검사기관의 협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결과의 신뢰성 문제와 향후 검사물량의 증가에 따른 검사능력 한계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공의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없는가를 제안하기도.

농축산물 가공업부 일원화요구

생산자단체

18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축협등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새로운 식품업부관장기구를 신설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앞서 그동안 잘못 관장돼온 농축산물 가공업부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은 사실상 일관공정인데도 정부부처의 업무체계 이원화로 농축산물 가공업부발전과 수급안정이 저해되고 있다』며 『농축산물 가공업부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기위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각 정당에 가공업부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축산물 가공업부의 농림수산부 일원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전단 10만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고 지역 국회의원 방문, 전화걸기 운동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송이수출 크게늘어 올 5천만달러

송이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송이 수출은 5백20t, 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난 93년 1백32t, 2천1백만달러에 비해 수출액 기준으로 두배이상, 지난해의 1백45t, 2천5백만달러에 비해서도 두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송이 생산량은 적정강우및 온도등 기상여건이 비교적 좋았던데다 송이버섯파리 방제, 송이 증산기술 보급 등에 힘입어 93년 1백37t, 지난해 1백46t의 4배가 넘은 6백5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부적합판정 23만5천4백48kg, 93년비해 6.6배

수입약재

폐기처분 "수두룩"

녹용·백출·용골 등 최근 3년간 수입한 중국산 한약재의 상당량이 부패 또는 변질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 까지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의약품시험연구소가 중국산 수입 한약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녹용·백출·후박·녹각등 20개 한약재 수입량 2백75만6천1백49kg 가운데 부패되거나 변질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은 8.5%인 23만5천4백48kg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의 부적합판정 물량 8만2천1백95kg에 비해 8개월만에 2.8배, 93년의 부적합 판정 물량 3만6천1백86kg에 비해서는 6.6배가 늘어난 것이다.

녹용의 경우 대부분 부패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호, 소엽 등은 이물질함유 후박, 복령, 황백등은 시험 부적합, 용안육, 대황은 변질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중국산 원지는 화분시험 부적합으로 소각됐고 중국산 골쇄보, 용골, 오약은 이물질 함유로, 중국산 육종용은 저질품으로 규명돼 폐기 처분됐다.